



이 책의 구성과 특징

1 단원의 시작

- 학습 내용과 관련된 경험이나 배경지식을 점검하여 흥미를 일으킬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옛이야기
옛이야기 속에 담긴 지혜
◆ 이야기 속에 담긴 교훈을 찾아봅시다.

그림

보고 어떤 교훈이 담겼는지 생각해 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소가 더 큼니다.

인내를 가져다 주고 속마음은 진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고치면 마음은 정말 깨끗해집니다.

단원명

학습 목표

생각 열기

흥미와 동기 유발을 위한 글, 삽화, 사진

2 제재 구성

- 시, 이야기, 만화, 노래, 그림 등 다양한 형식의 읽을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도요새와 조개를 얻은 어부

옛날에 중국의 조나라와 연나라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에 연나라 왕이 소테라는 신하를 조나라에 보내 화전을 청했습니다. 소테는 조나라 왕을 만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조나라로 오면서 강가를 지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조개 한 마리가 뱀뱀을 쫓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요새가 조개알을 쫓아 먹으려고 조개 입속으로 부리를 집어넣었습니다. 잠깐 동안 조개가 열린 입을 다물어 버렸고, 도요새의 부리가 조개입결 사이에 물렸습니다. 도요새는 오늘날 내일 비만 오지 않으면 조개가 바짝 말라 죽을 것이라고 예견했고, 조개는 조개대로 오늘날 내일 입을 벌려 주지 않으면 도요새가 죽을 것으로 여겨 입을 꼭 닫고 버렸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던 어부가 도요새와 조개를 한꺼번에 잡아서 팔래기에 넣었습니다. 지금 조나라 왕께서는 연나라를 공격하려고 하시는데 혹시 우리 두 나라가 서로 싸우다 보면 결국 주벌의 다른 나라가 어부처럼 이익을 얻게 될까 걱정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사는 이 상황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테의 말을 들은 조나라 왕은 과연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여 연나라를 공격하려던 계획을 중지하였습니다.

3 학습 활동 및 평가

- 제재를 읽고 논술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학습 활동을 제시하였습니다.
- 창의성과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학습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광화문」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였는지 알아봅니다.

2 말의 표정
글의 내용을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3 낱말을
제재 글에 나오는 중요한 낱말을 익히거나 어휘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4 사람들
자기 주도 학습 및 창의성 향상을 위한 중심 활동을 제시하였습니다.

5 아래 주어진 것

아래 주제 중 한 가지를 글과 친구와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를 써 봅시다.

- 주제 1. 반 친구들 연호를 어떻게 정할까?
- 주제 2. 급식 순서를 어떻게 정할까?
- 주제 3. 청소 일반을 어떻게 정할까?

주제:

구분	의견	근거
나		
친구		
우리		

배움 다지기

본 단락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나요?

차례

1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 7

2 가치 있는 삶 13

3 옛이야기 속에 담긴 지혜 19

4 마음의 울림 27

5 내 꿈을 찾아서 33

6 지붕 없는 박물관 39

7 하나뿐인 지구 47

8 슬기로운 민주 생활 53

9 화폐의 미래 59

10 따뜻한 배려 큰 감동 67

11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75

12 건강한 성장 81

자료 출처 87





손에 잡히는 논술, 생각이 풍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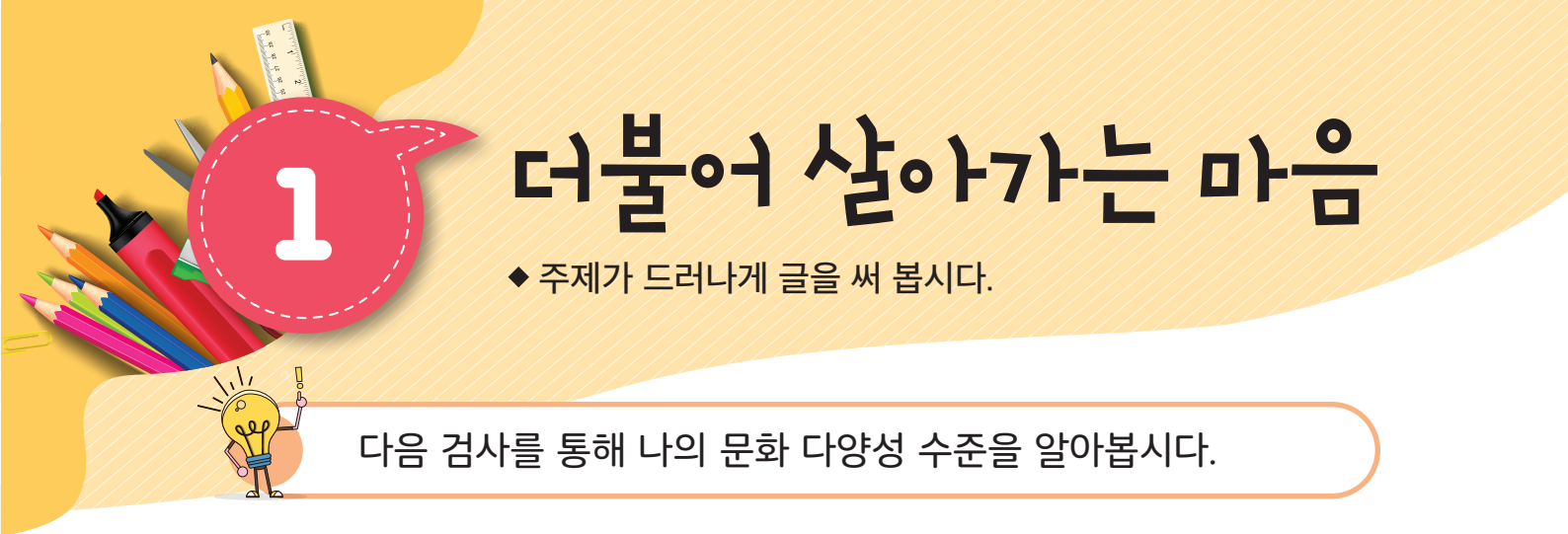
논술은 다른 글과 어떤 차이를 보이나요?

논술은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글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지만, 경험이나 자신의 느낌을 쓰는 생활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기나 독후감은 읽는 사람을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논술은 내 글을 모든 사람이 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써야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내 의견의 적절한 근거와 이유를 들어야 합니다.

논술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논술은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책이나 신문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책과 신문을 통해 쌓인 지식이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쓰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쓰면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고 자신감도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쓴 글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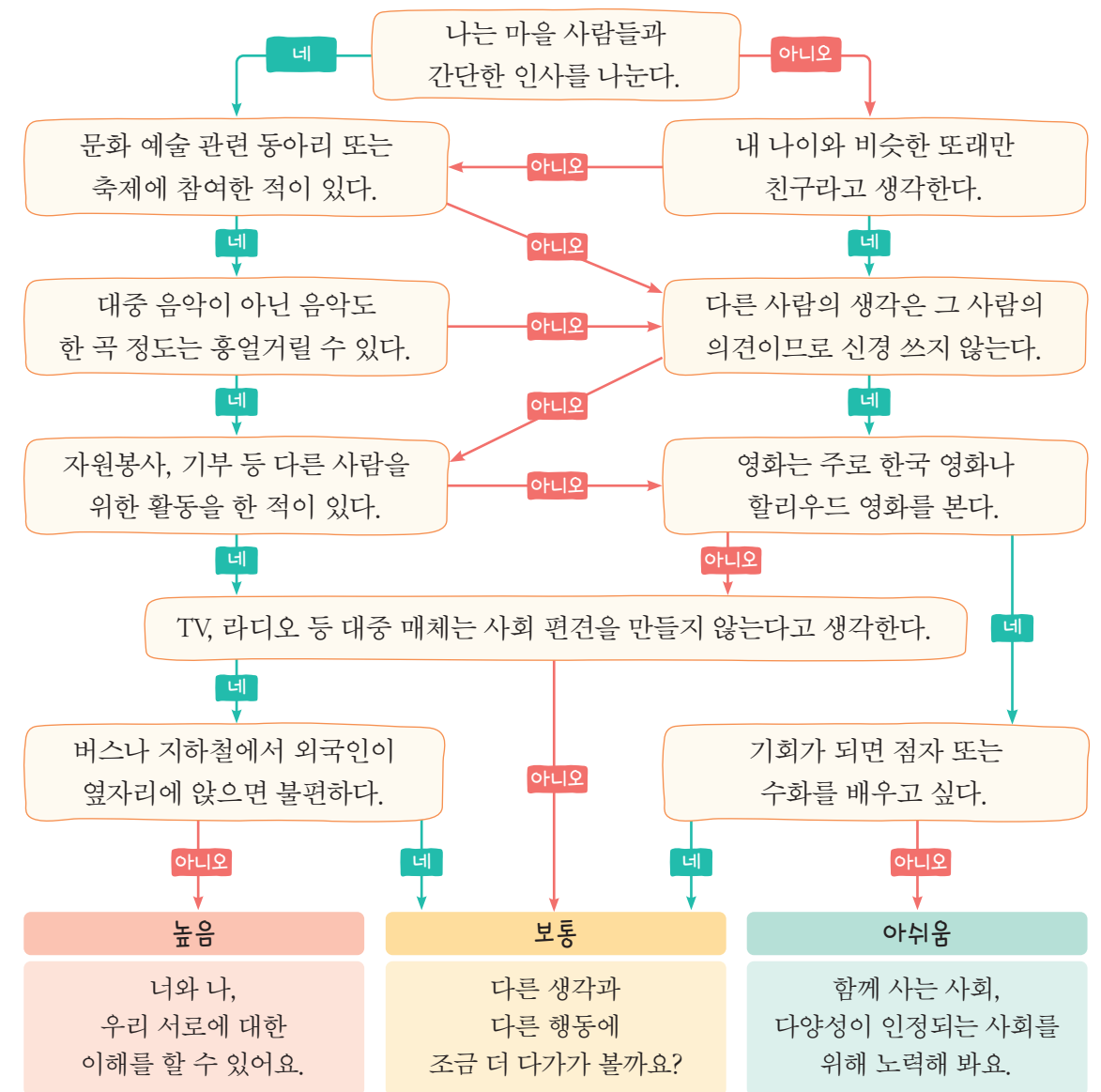


1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

◆ 주제가 드러나게 글을 써 봅시다.

다음 검사를 통해 나의 문화 다양성 수준을 알아보시다.



나의 문화 다양성 수준은 ()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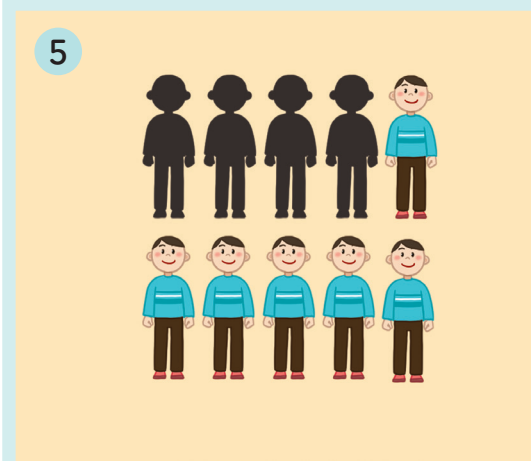
내 이름은 허황옥



1 내 이름은 허황옥, 내 고향은 인도입니다. 가야국으로 배 타고 와서 김수로 왕과 결혼을 했지요. 요즘 말로는 국제 결혼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나는 황후가 됐습니다.



2 요즘 이 나라에 나처럼 외국에서 온 사람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 수가 어렵잡아 2백만 명이 넘는다고요.



5 그리고 외국에서 온 사람 중에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을 조사해 봤더니 무려 열 명 중 네 명이나 된다고 하고요.



6 다들 알다시피, 가야는 아름다운 문화가 꽃핀 나라였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할 줄 알았던 가야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3 가정을 꾸려서, 직장을 찾아서, 학업을 위해서 그렇게 이 나라에 온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을 '다문화'라고 한가지요?

4 다문화 수용 정도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독일	스웨덴	호주
일자리가 귀할 때 자국민 우선 고용에 찬성	60.4	50.5	41.5	14.5	51.0
외국인 노동자,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음	31.8	13.7	21.5	3.5	10.6
자신을 세계 시민으로 생각 (대체로 또는 매우 그렇다)	55.3	69.1	62.3	82.0	79.5

※ 2015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 성인 다문화 수용성 53.95점

4 다양한 나라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 이 나라 사람들이 다문화를 받아들이는 정도를 조사했는데, 54점 정도가 나왔다고 하네요.



7 다른 피부색과 다른 언어의 사람들. 어색한 게 당연하죠. 그럴 땐 여러분이 다문화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이 할미, 허황후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질 거예요.



8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고, 그 차이를 존중할 줄 아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함께 살아가는 게 즐거워질 거예요.

1 「내 이름은 허황옥」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허황옥은 어떤 사람인가요?

2 '다문화'란 무슨 뜻인가요?

3 가야국에 아름다운 문화가 꽃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4 허황옥은 어떤 마음을 지닌다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즐거운 것이라고 했나요?

2 「내 이름은 허황옥」을 통해 허황옥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지 써
봅시다.

3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내 이름은 허황옥」에서 찾아 써 봅시다.

• 대상을 높여 귀중하게 대하는 것을 (이)라고 한다.

• 문물, 의견, 조건 등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이)라고 한다.

•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을
(이)라고 한다.

4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문화적 편견을 없애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써
봅시다.

5 시를 읽고 말하는 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세계의 아이들

방콕의 뱃집에서 아기가 울었다.
응아응아 하고 울었다.
밀림의 움집에서 아기가 울었다.
응아응아 하고 울었다.

내 고향 초가 마을에서 듣던
우리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나라와 인종은 달라도
울음소리는 모두 같았다.

파타 언덕을 달리며
맨발의 아이들이 깔깔거렸다.
발리의 파도를 안고 뒹굴며
노랑머리 아이들이 깔깔거렸다.

내 고향 들판에서 뛰놀던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였다.
생활과 말씨는 달라도
웃음소리는 모두 같았다.



● 주제를 찾아 주제가 드러나게 글을 썼나요?



2

가치 있는 삶

◆ 인물이 한 일에 대하여 나의 생각을 써 봅시다.

‘겨울 햇살’이 한 일을 생각하며 시를 읽어 봅시다.

겨울 햇살

어린
겨울 햇살은
걱정도 많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잘 있어요?
별일 없지요?

시냇물 속의 피라미에게도
갈색 무늬 다슬기에게도
인사합니다.

들길의 꽃씨와
여린 풀뿌리도 춥지 않을까
시린 손 호호 불며
짧은 해 종일
조금씩 데워 놓고 다닙니다.

어린
겨울 햇살은
할 일도 참 많습니다.

